

광주시-경자청, 300여 해외투자사에 '광주 세일즈'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참가

홍보관 운영... 인공지능·미래차 등 전략산업·우수 투자환경 알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30~31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 IKS 2025)'에 참가, 광주의 미래전략산업과 우수한 투자환경을 적극 알리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올해 21번째를 맞은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다. 300여개 해외 투자사, 국내 17개 시도, 6개 경제자유구역청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다.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행사장에 '인공지능(AI)·미래차산업 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하는 공동홍보관을 운영하

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인공지능(AI) 융합단지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등 광주의 핵심 전략산업거점을 중심으로 우수한 투자환경과 인프라를 소개한다. 또 광주 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과 광주 AI기업 성장 사례를 담은 영상을 상영한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들에게 광주의 투자 혜택(인센티브)·임지정보·보조금 제도 등 실질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국내 단일 및 특수유리 가공설비 제조기업 쉐어이시스, 점유율 세계 1위 유리가공 기계 제조기업인 오스트리아 라이섹(LISEC GmbH)과 '3자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총 4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광주 전략산업의 최첨단 인프라와 기업 지원 역량을 선보이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태진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인공지능(AI), 미래차, 에너지 산업이 융합된 미래 전략산업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참여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광주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알리고, 글로벌기업과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북구, '영호남 장애인 교류'부터 '통장 한마음대회'까지

포용과 화합의 장 곳곳에서 열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31일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 대회'를 시작으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통장 한마음대회'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가 다음 달 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영·호남 장애인 친선 교류 대회'가 31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북구 모퉁대길68)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영호남 간 지역 화합을 다지기 위해 지난 1997년 달서구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행사 당일에는 문인 북구청장, 최무승 북구의회의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의장 등 기관장

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축하공연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이 양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다채로움이 모여 하나 되는 어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준비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 체험을 통해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도전! 지구촌 골든벨', '다국적 음식·문화 체험'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계획이며 행사의 모든 과정은 광주시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광주이주여성연합회,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제다문화배우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송현근 기자

'안전도시 동구' 구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동구지역치안협의회, 유관기관 참여 치안정책 등 공유

선, 범죄예방 등 지역 치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펼쳤으며, 기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또한 지난달 개최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범죄취약지 개선, 야간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자살시도자 정보공유 체계 구축, 청소년 비행 예방 및 흡연·음주 계도 등 생활밀착형 치안

협력과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동부경찰서는 5대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12.8%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합동 순찰 강화와 CCTV 확충을 제안했다.

동구는 안심귀갓길 조도개선, 공중화장실 비상벨 교체, 불법이륜차 단속,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주요 추진실

적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시도자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대응 한계를 지적하고, 유관기관 간 핫라인 구축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치안은 행정·경찰·소방·교육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힘써 '사람이 행복한 안전도시 동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2025년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치안 정책 공유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임택 구청장(위원장)을 비롯해 문선화 동구의회의 의장, 김중호 동부경찰서장,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22명의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 범죄예방 환경 개

광주 남구 주민배심원, '공약 검증시간' 갖는다

64개 사업 점검·평가... 현재 49개 사업 완료, 이행률 76.6% 수준

부에서 공약 이행 상황을 직접 평가한다.

현재 배심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은 32명으로, 이들은 공약 이행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 모집 과정에서 나이와 성별, 동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및 면접을 통과한 뒤 민선 8기 시작점인 지난 2022년 7월부터 활동에 나서고 있다. 남구

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총 64개이며, 이 가운데 공약사업 49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 완료율은 76.6%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민배심원단 회의는 오는 11월 5일 첫 일정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분임별 토의와

공약사업 담당 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부서별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분임별 토의 과정에서 도출한 평가 의견을 전체 회의에서 공유한 뒤 공약 사업 조정·평가의 적정 여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남구는 주민배심원단의 의견 및 권고안을 이행 기간 동안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남구청 공약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및 개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서구, 전통시장 '착한 장보기'로 활력 불어넣는다

서구 공직자, 온누리상품권 활용해 지역 상권 활력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착한 장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착한 장보기'는 서구 공직자들이 자 volontarily 참여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이후 전통시장을 찾아 생필품과 제철 식재료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소비 열기를 전통시장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구는 특히 '착한가게'로 등록된 점포

를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의 나날이 선순환 실현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4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80여 명이 양동전통시장을 찾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하며 '착한소비'를 실천했다.

공직자들은 "시장을 직접 돌아보며 변화된 활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양동전통시장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직자가 먼저 전통시장을 생활 속에서 이용해 어려운 시기에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전남도,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7개소 적발

특별사법경찰 특별단속 결과... 재발 방지위해 지속 단속키로

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추석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을 해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뿐 아니라 '한우'로 표시된 제

